광부는 왜 스님이 돼야 했을까?



이안의 Media In Buddha

㊾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



1980년 일어난 사북항쟁을 그린 다큐 〈1980 사북〉의 한 장면.

'1980'이라는 숫자는 한국에서 특정한 역사적 환란이 벌어진 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쓰인다. 지역 봉기와 계엄령과 민간인 학살과 군사정권과 독재의 시대.

'사북'이라는 지역은 특정한 시대를 지난 사람들에게만 느닷없이 익숙하다. 그곳을 가보아서가 아니라, 그 지역 어떤 볼거리가 잘 알려져서가 아니라, 언제였던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1980 광주'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데 '1980 사북'은 그게 뭐였더라 잘 떠오르지 않는 막연한 조합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이 지역을 화두로 삼아 5년 동안 매달린 박봉남 감독은 '1980년 사북,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세월을 겪어냈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악업의 무저갱을 열어 놓았는지 찬찬히 톺아보고 이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을 기어코 세상에 내놓았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시도 군도 아닌 읍이라니.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대표 산업이 예전에는 탄광업, 지금은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는 리조트 강원랜드. 그렇다면 영화 제목이 된 시기의 사북은 카지노나 스키 리조트 관광지 말고 탄광촌. 시기와 지역을 콕 짚어 앞세운 이런 영화 제목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를 만도 한 것이 당연한 걸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정과 연대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개최된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한국 경쟁 장편부문 대상과 더불어 올해 신설된 국제영화비평가 연맹상까지 국내외 심사위원들로부터 두 개 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니까.

방글라데시 외진 바닷가 마을을 찾아가 선박 해체를 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에서 지구적 차원의 노동과 자본의 업과 연을 만다라와도 같이 담아낸 영화 〈철까마귀〉로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2009년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박봉남 감독의 시선과 만듦새가 뛰어났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제목의 현장 지역인 사북읍이 속한 강원도와 정선군도 각각 지원하고, 지자체 영화기관인 강원영상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도 제작지원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만큼 이 영화가 다루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연대기적으로 훑어보고 지리적으로 찾아보면 1980이라는 숫자와 사북이라는 지역의 조합으로는 딱 하나만 나온다. '사북사건'.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사 간의 극심한 갈등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북탄광 노동항쟁. 그 사건은 당시에 정말 큰 충격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여주던 쿠데타 시기를 갓 지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노동자들이 항쟁을 벌였다는 것도, 그 와중에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경찰관이 죽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건을 다룬 수많은 기사와 방송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남은 이미지는 내복 바람으로 시위대에 둘러싸여 기둥에 묶인 한 중년 여성의 사진과 그 상황을 정의하는 '린치'라는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이었다.

잊혀진 역사 1980년 사북항쟁 조명
당시 린치 피해자 노조위원장 부인
항쟁 이후에 스님이 된 노동자 담아
사북항쟁, 그 시대를 비추는 '업경'

광부들이 왜 화가 났는지,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게 된 까닭은 뭐였는지,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저 여성은 왜 성난 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치욕스러운 사진을 찍히고 있는지 궁금한 일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곧 '사북'을 잊게 되었다. 그런 사건에 기함한지 한 달도 안 되어 터진 1980년 5월의 충격 때문에.

그렇다. 사북사건은 그냥저냥 지나가는 여러 사건사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불길한 시대를 예고하는 징조, 조짐, 증상, 예고였던 것이다. 그러니 단순 사건이 아니라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민주화 이행기의 '3대 사태' 가운데 하나인 '사북항쟁'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당사자들로서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국가를 상대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아물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폭력의 흉터다.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인 황인오 사북항쟁동지회장과 나레이터이자 화가인 황인욱 형제는 소년 시절 린치를 당하는 중년 여성의 아들과 같은 학교 친구였고, 대학 시절에는 영화를 만든 박봉남 감독의 선배였다. 황인오 씨는 당시 너무 어려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친구끼리도 이웃 사이도 험해졌고, 그보다 더 험해진 것은 소년 황인오가 대학생 황인오가 되어 맞은 80년대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그 험한 세월을 지나 어른이 된 이들이 40년이 넘도록 아물지 않은 상처의 업을 지고 후배인 박봉남 감독을 찾았고, 박봉남 감독은 '인연이 곧 업'이라고 받아들여 '사북'이라는 화두를 잡다 보니 5년이 훌쩍 지나게 된 것이다.

영화는 1980년 4월 이후 험한 고문으로 망가진 몸과 마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 고문 후유증, 강압수사에 못 이긴 거짓 자백, 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면서 새겨진 인간 불신 등으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찾아간다. 박봉남 감독은 캐묻는 대신 귀를 기울인다.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경찰, 하지도 않은 폭력행위 가해자로 몰려 불구가 된 동지회 회원들뿐 아니라 당시 린치의 피해자가 되었던 노조지부장 부인과 그 가족의 고통도 담아낸다.

그렇게 사람들의 업과 인연을 따라 감독의 카메라가 당시 광부였던 천만성 씨를 찾아간 곳이 강경에 있는 태고종 사찰 수국사. 사건 이후 천만성 씨는 스님이 되었다. 고문으로 몸이 상해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거니와, 어렵사리 일을 하다가도 사북 항쟁의 이력이 밝혀지면 내몰리기를 거듭하다가 불가에 귀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려 막장에 들어가는 광부가 되었는데 스님이 되겠다고 가족을 저버릴 수 없어 대처승으로 불문에 드는 것이 가능한 태고종을 찾게 되었다는 천만성 씨는 감독이 찾아갔을 때는 수국사 주지인 덕월 스님이 되어있었다. 덕월 스님은 영화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고, 영화제 첫 시사장에는 유족이 된 부인이 참석해서 회한어린 인사를 전했다.

〈1980 사북〉은 마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업경(業鏡)'과도 같다. 이제는 폐광이 된 사북에 여리지만 고운 들꽃이 피어난 것을 놓치지 않으며 사람들의 악연 사이를 비추는 박봉남 감독의 이 업경을 스크린을 따라 함께 들여다보노라면 울컥울컥 시대가 아프고, 인연이 아프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자신을 병원까지 가는 동안 품에 안고 있었던 이가 시위대였다고 기억하는 경찰이 사상 사고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 곳에 진입을 명령한 까닭을 묻는 장면, 참담한 고문에서 입은 수치와 상처를 내보이는 등장인물들의 상처는 단순한 인연의 업이 아니다.

박봉남 감독은 카메라에 없는 것들, 아직 업경에 비추어지지 않은 것들을 상기시킨다. 동원탄좌 기업주, 정보기관, 특전사, 고문경찰, 재판부, 최고권력자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악업들이 뭉친 악업. 이 업을 풀려면 국가의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파장이 부디 한 영화제에서 그치지 않고 길게 멀리 퍼져나가는 업경의 소임을 다하기를 기원한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㊴

1. 경전의 성립과 관련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제1차 경전결집의 주도자는 사리불 존자이다.
② 제1차 결집 때 경전 내용이 언어로 기록되었다.
③ 제2차 경전결집은 대월지국의 카니슈카 왕이 주도하였다.
④ 제1차 결집에서 아난 존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리 내용을 암송하였다.
⑤ 대장경은 경·율·론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다.

해설 : 제1차 결집의 주도자는 마하가섭이다. 결집의 내용은 기원전후의 스리랑카에서 처음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제2차 결집은 근본분열과 관련된 내용으로 불멸 100여년 뒤에 일어났다고 하며 카니쉬카는 기원 후의 인물이다. 삼장 중에서 논장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과 율에 대한 후대 대덕스님들의 해석임으로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내용은 아니다. 참고로 경장이라 하더라도 『잡아함경』에는 제자가 설한 경전들도 있다.

2. 불교경전 편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장과 율장, 논장의 원형은 모두 제1차 결집에서 만들어졌다.
② 부처님 입멸 후 교법의 통일과 전승을 위해서 결집이 필요하였다.
③ 최초의 결집은 라자그리하의 칠엽굴에 5백명의 비구만이 참석하였다.
④ 제3차 결집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부처님 말씀이 최초로 문자화 되었다.
⑤ 계율에 대한 각 부파의 견해 차이를 통일하고자 제2차 결집이 이루어졌다.

해설 : 보기에 오류가 있는 문제이다. 경전편찬사에 대해서 여러 불교사서들은 다른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①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마자 삼장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인데, 『십송율』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부파의 율장들은 다 삼장이 이때 갖추어졌다고 주장한다. ②는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③은 오백명, 천명 설 등 주장이 많지만 대략 오백명 설이 많이 나타날 뿐 정설은 없다. ④3차 결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방 상좌부만의 주장으로서 결집은 각 부파들이 각자 하였을 가능성이 큼으로 이 3차 결집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남방 상좌부의 주장에 따르면 3차 결집은 아쇼카왕 때 이루어진 것으로 문자화에 관련한 내용은 없다. ⑤의 경우에도 계율이 아니라 대천이라는 비구의 아라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삿된 견해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전승도 있다. 본 문제는 잘못된 출제이다.

3. 불교 역사상 세계 최초의 사찰은?

① 초문사 ② 불국사 ③ 이불란사 ④ 죽림정사 ⑤ 기원정사

해설 : 빔비사라왕이 보시한 죽림정사이다. 기원정사는 급고독장자가 보시하였다. 나머지 사찰들은 우리나라에 있었거나 지금도 있는 사찰명이다.

4. 기원정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깊은 산속에 있었음 ②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라고 함
③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금강경을 설하심
④ 제따(기타)태자와 수닷타 장자가 합심하여 건립함
⑤ 죽림정사와 더불어 초기불교의 2대 사원으로 불림

해설 :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의 다른 말로서 기타태자와 수닷타 장자가 합심하여 건립하였고 죽림정사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2 곳의 사찰이다. 이곳을 부처님께서 눈여겨 보신 이유는 깊은 산속이여서가 아니라 탁발을 나갈 수 있는 마을과 그다지 멀지도, 그다지 가깝지도 않아 생활에 필수적인 공양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금강경은 기원정사에서 설하셨다고 경의 서분에 밝히고 있다.

5. 불교의 전파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를 인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쇼카 왕이다.
② 대승불교는 인도문화권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③ 팔리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상좌부 불교의 전파 기점이 된 곳은 스리랑카이다.
④ 쿠샨왕조의 카니슈카 왕은 중생의 구제를 앞세우고 대승불교를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⑤ 현재 불교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뿐이며,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는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

해설 : 본 문제도 보기에 오류가 있다. 카니쉬카 왕은 협존자를 중심으로 500명의 비바사(논사)를 모아 『아비달마대비바사론』 200권을 결집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의 주도 하에서 대승경전이 일어났다는 사실(근거)은 확인되지 않는다. 카니슈카의 활동시기가 대승불교의 흥기시대와 겹친다고 해서 그가 대승불교를 권장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교는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④, ⑤가 동시정답이다.

정답 : 1. ④ 2. ① 3. ④ 4. ①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